

## 一般大衆 弘報에 努力

向坊 隆 <日本原子力委員會 委員長代理>

원자력은 현재 전세계에서 425기, 약 3억 4천만kW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중이어서 전세계 총 발전전력량에 대해 원자력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착실히 증가하고 있어서 전력공급의 주요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우수한 장점이 있어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 등 국제회의에서도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물론 원자력의 개발이용을 원활히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확보에 더한층 노력하여 안전운전의 실적을 쌓음과 아울러 정부관계기관이 한덩어리가 되어 종래보다 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에 노력해 가고자 한다. 이때 자칫하면 일방적이 되기 쉬

운 홍보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 국민의 의문과 불안에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답해 가는 대화형식으로 적시에 정확히 대중에 대한 홍보활동을 펴고자 하는 바이다. 원자력을 둘러싼 정세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정부는 민간의 핵연료사이클사업화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홍보활동의 강화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한편 원자력분야에서 일본의 국제공헌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근 아시아지역과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일체적인 협력이 유효하고, 합의를 얻으면서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전체의 원자력기술수준 향상에 공헌하고자 한다.

원자력의 개발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전확보가 대전제이며, 본인으로서도 전력을 다할 각오이다.

## 폭넓은 論議가 必要

大前 研一 <日本原産年次大會 準備委員長>

원자력이 국민에게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모든 사실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과 반대파의 논의에는 모두 일면적인 점

이 있고, 전체적인 면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18년만에 원자력을 검토하며 생각한 것은 찬반 양론에서 논의의 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다. 그래서 8가지의 축을 정해 보기로 했다. ① 안전성, ② 경제성, ③ 대체에너지의 매장량과 부하능력, ④ 사회적 수용성, ⑤ 환경문제, ⑥ 시간축의 문제(시간이 지나면 에너지정세도 바뀐다), ⑦ 국제연휴, ⑧ 지정학 등 8개 항목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은, 예를 들면 경제성에서는 폐기물처분까지 포함한 코스트시산의 데이터가 없고, 원자력을 포기하면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되며, 국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입힐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많지 않다. 또한 태양발전 등 다른 에너지의 안전성 등을 평가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재의 에너지믹스정책을 평가할 판단자료가 없다.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번 사회적 미로에 들어갔을 때의 탈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대한 사실 파악부터

해 갈 필요가 있다. 시간축의 문제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할 추세이며, 특히 그런 의미에서는 개발에 시간을 요하는 원자력은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졌다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과 기술의 축적을 쌓아 안전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 연휴는 앞으로 특히 중요하다. 각국의 정책결정이 상호 영향을 주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 온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환경문제 등은 지구규모에서의 정보교환이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이런 정책결정의 여하에 따라 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논의의 축을 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안 것을 실행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세계의 先驅者的 役割을

田城寺次郎 <日本原子力産業會議 會長>

우리들은 지금 세계가 이데올로기를 넘어 세계평화와 상호협력에 근거한 신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바로 역사적인 시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은 각국이 자기 안전보장정책하에 그 나라 독자의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국의 에너지정책이 전세계의 에너지수급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세계에너지수급의 대폭적인 확대를 생각하면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석유평가동태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중

심으로 석유화력발전소의 건설중지 등 석유를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이 각국간에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수준에서의 조정은 장래 세계의 에너지안정공급,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의 감소 등을 위해 양과 질의 양면에 대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즉, 전세계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규모에서 검토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세계규모에서의 에너지정책 검토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은 기술에 의해 방대한 에너지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